

# 전기요금, 피크시간 부과율 3배

## 산업부, 전력 수급대책 발표 ...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시행

정부는 원전 3기 가동중단 사태로 2013년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피크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하고 전력 다소비기업에 대한 절전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전력경보 주의·경계단계에서는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단토록 하며,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3배 이상 높게 부과하고 비피크시간대에는 할인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 정지 영향으로 예비전력이 198만kW까지 줄어드는 조유의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31일 발표했다.

전력수급대책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전년동월대비 15% 감축해야 하며 피크시간대에는 20% 이상 감축해야 한다.

피크시간에는 전등의 절반을 소등하고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며 오후 2-5시 피크시간대에는 냉방기의 순차운행을 멈추도록 규정했다.

전력수급경보 준비·관심단계(예비력 300만~500만kW)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예비력 100만~300만kW)에서는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며 자율단전을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외 대형건물도 냉방온도 26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냉방온도 규제가 적용되는 건물은 계약전력 100kW 이상 6만8000여곳이 포함된다.

피크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13개 노선의 운행간격도 1-3분 연장할 계획이며, 8월5-30일 4주 동안은 오전 10-11시, 오후 2-5시 총 하루 4시간 전력다소비기업의 절전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의 전력을 감축해야 하며, 감축방법은 일별감축이나 총량감축 중 해당기업별 시정에 맞게 선택하도록 규정했으며, 규제대상기업은 계약전력 5000kW 이상 2만8036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7-8월 중 피크일과 피크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할증하고 비피크일과 비피크시간대에는 할인해주는 선택형피크요금제를 계약전력 3000kW 미만에서 5000kW 미만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31>